

질그릇교회 CLAYJARS

1314 N Angelina Dr. Placentia CA 92870
www.clayjars.org
황성만 목사 Rev. Sungman Hwang

2026년 교회 표어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요13:34~35, 요일4:11)

Christians who Sharing Love

: Embracing All, Serving All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I am giving you a new command. You must love each 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If you love each other,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요한복음(John) 13:34~35]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rom the beginning you were told that we must love each other.

[요한일서(John 1) 3:11]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2 Corinthians 4:7)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성령강림절 후 스물세번째 주일 | **November 1, 2026**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히 13:15-16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섬김
고백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기도 Prayer		**황성만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김미정 집사,** 미가(Micah) 3:5-12 **교독-다함께,**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2:9-13
복음서봉독 The Gospel		마태복음(Matthew) 23:1-12, **설교자**
오늘의 말씀 Sermon		"누구의 어깨 위에" On Whose Shoulders? - **황성만 목사**
봉헌 Offering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광고 Announcement		
결단찬양 Responsive Song	*	겸손히 주를 섬길 때 (347)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축도 Benediction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 다음주 기도 | 정해철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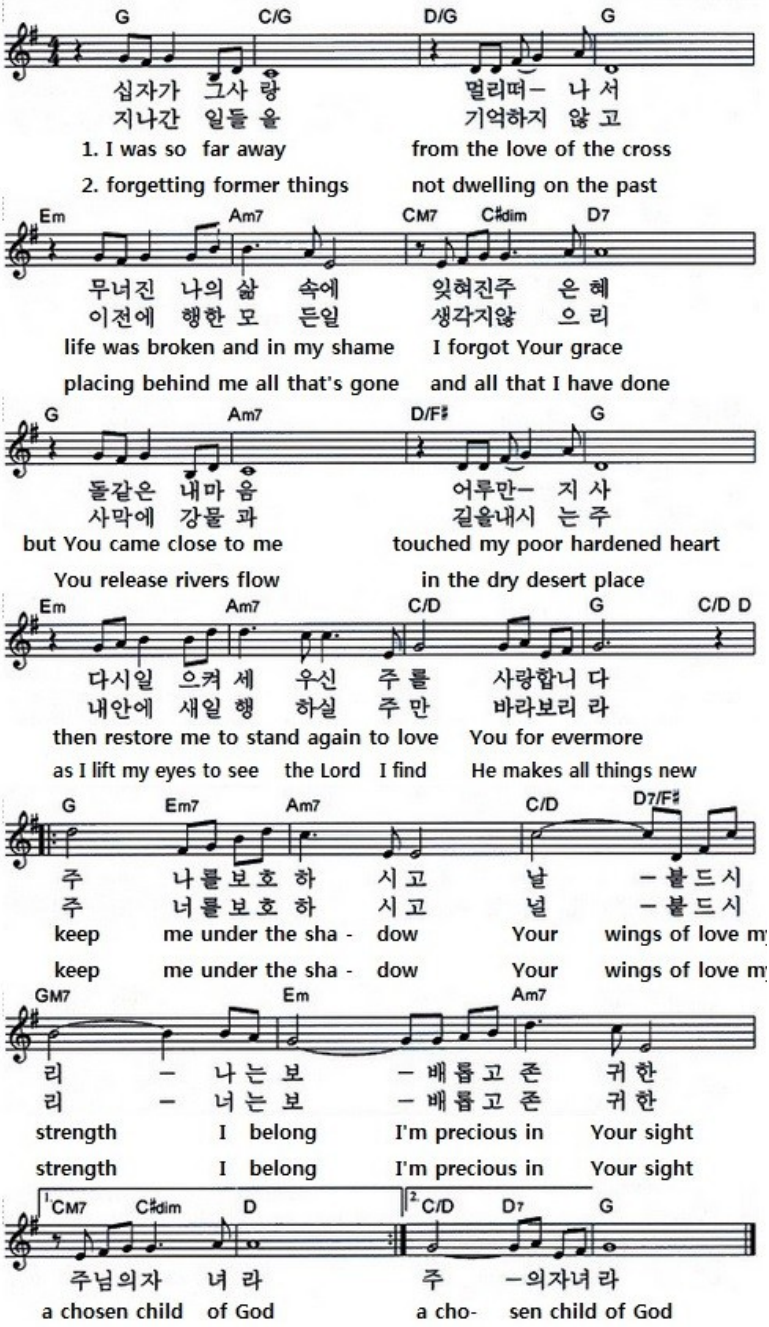
| 다음주 본문 | 봉독자 **김미정 집사** 아모스(Amos) 5:18-24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4:13-18
마태복음(Matthew) 25:1-13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 13:15-16)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Words & Music by
Stephen Hah



36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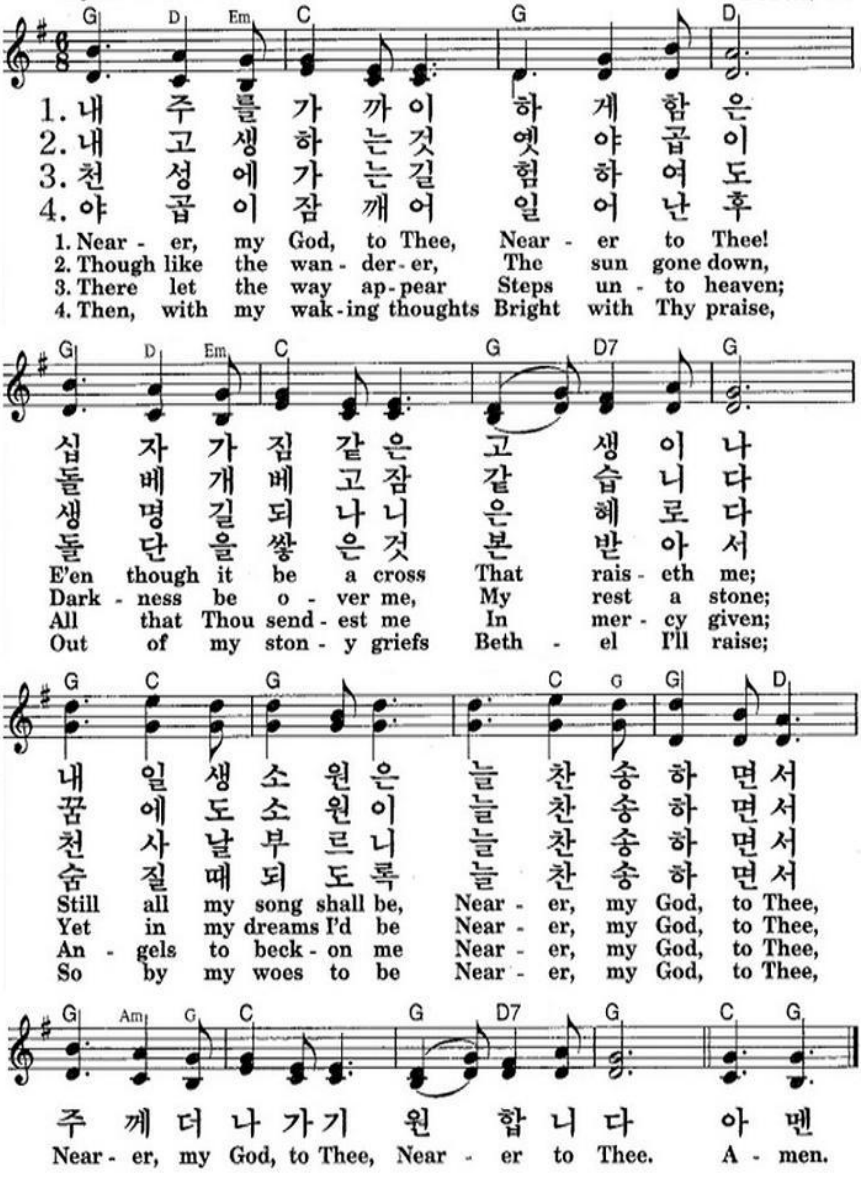
Nearer, My God, to Thee

(창 28 : 10-19)

S. F. Adams, 1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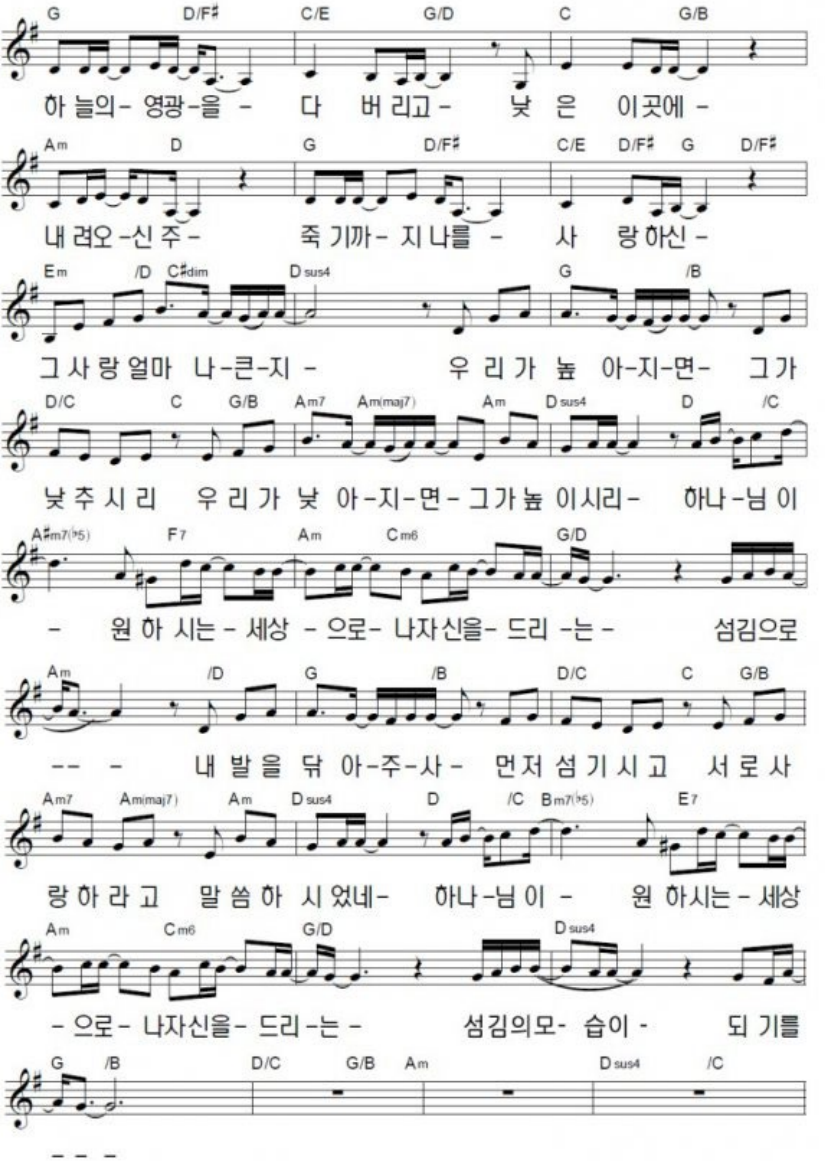
보통으로 ♩. = 88

BETHANY: 6.4.6.4.6.6.6.4.
L. Mason, 1856



시련과 극복

섬 김


G D/F♯ C/E G/D C G/B
하 늘의- 영광-을 - 다 버 리고 - 낮 은 이곳에 -
Am D G D/F♯ C/E D/F♯ G D/F♯
내 려오 -신 주 - 죽 기까- 지 나를 - 사 랑 하신 -
Em /D C♯dim D sus4 G /B
그 사 랑 얼마 나 -큰-지 - 우 리 가 높 아-지-면- 그 가
D/C C G/B Am7 Am(maj7) Am D sus4 D /C
낮 추 시 리 우 리 가 낮 아-지-면- 그 가 높 이시리- 하나 -님 이
A♯m7(♭5) F7 Am Cm6 G/D
- 원 하 시는 - 세상 - 으로- 나자신을- 드리 -는 - 섬김으로
Am /D G /B D/C C G/B
-- - 내 발 을 닦 아 -주-사 - 먼저 섬 기 시 고 서 로 사
Am7 Am(maj7) Am D sus4 D /C Bm7(♭5) E7
랑 하 라 고 말 씀 하 시 었네- 하나 -님 이 - 원 하시는 - 세상
Am Cm6 G/D D sus4
- 으로- 나자신을- 드리 -는 - 섬김의모- 습이 - 되 기를
G /B D/C G/B Am D sus4 /C
- -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미가(Micah) 3:5-12, 새번역, ESV]

5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 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6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7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8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 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9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10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11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삯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12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5 Thus says the Lord concerning the prophets who lead my people
astray, who cry "Peace" when they have something to eat, but declare
war against him who puts nothing into their mouths. 6 Therefore it
shall be night to you, without vision, and darkness to you, without
divination. The sun shall go down on the prophets, and the day shall
be black over them; 7 the seers shall be disgraced, and the diviners
put to shame; they shall all cover their lips, for there is no answer
from God. 8 But as for me, I am filled with power, with the Spirit of
the Lord, and with justice and might, to declare to Jacob his
transgression and to Israel his sin. 9 Hear this, you heads of the
house of Jacob and rulers of the house of Israel, who detest justice
and make crooked all that is straight, 10 who build Zion with blood
and Jerusalem with iniquity. 11 Its heads give judgment for a bribe;
its priests teach for a price; its prophets practice divination for money;
yet they lean on the Lord and say, "Is not the Lord in the midst of us?
No disaster shall come upon us." 12 Therefore because of you Zion
shall be plowed as a field; Jerusalem shall become a heap of ruins,
and the mountain of the house a wooded height.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2:9-13, 새번역, ESV]

9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10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11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12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9 For you remember, brothers, our labor and toil: we worked night and day, that we might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while we proclaimed to you the gospel of God. 10 You are witnesses, and God also, how holy and righteous and blameless was our conduct toward you believers. 11 For you know how, like a father with his children, 12 we exhorted each one of you and encouraged you and charged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God, who calls you into his own kingdom and glory.

13 And we also thank God constantly for this, that when you received the word of God, which you heard from us, you accepted it not as the word of men but as what it really is, the word of God, which is at work in you believers.

[마태복음(Matthew) 23:1-12, 새번역, ESV]

1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3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4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5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6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7 장터에서 인사 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9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10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11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23 Then Jesus said to the crowds and to his disciples, 2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sit on Moses' seat, 3 so do and observe whatever they tell you, but not the works they do. For they preach, but do not practice. 4 They tie up heavy burdens, hard to bear, and lay them on people's shoulders, but they themselves are not willing to move them with their finger. 5 They do all their deeds to be seen by others. For they make their phylacteries broad and their fringes long, 6 and they love the place of honor at feasts and the best seats in the synagogues 7 and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and being called rabbi by others. 8 But you are not to be called rabbi, for you have one teacher, and you are all brothers. 9 And call no man your father on earth, for you have one Father, who is in heaven. 10 Neither be called instructors, for you have one instructor, the Christ. 11 The greates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12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이번주 작품]



렘브란트,

「사도 바울로 분한 자화상」(Self-Portrait as the Apostle Paul)

1661 년, 암스테르담 레이크스미술관.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13411279

그림 속 렘브란트는 분장을 하고 있다. 바로 성서 속 인물인 사도 바울인데, 당시의 화가들 사이에서는 성서 속 인물로 분장한 후 그림을 그리는 것이 15 세기부터 시작된 전통이었다.

이제 젊은 날의 모습은 없고 늙고 볼품없는 노인이 남았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의 눈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눈은 늙고 힘없는 노인의 눈이 아니다. 아직도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빛나는 눈이다. 렘브란트는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고, 그림은 그에게 있어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음이 틀림없다. 그의 눈은 매우 명민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듯한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노년의 렘브란트는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 아내가 죽고 크게 상심했으며, 작업 속도가 느린 탓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재산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 자식들도 일찍 죽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런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던 렘브란트. 그의 노년의 모습을 보며 렘브란트가 왜 위대한 빛의 화가로 칭송받는지 깨닫는다. 그의 머리 위 터번에 드리워진 멋진 빛처럼, 그는 빛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줄 아는 위대한 화가였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그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훌륭한 화가라는 것을 말이다. (끝) / 출처 한경 머니 제 60 호. 필자 강지연 교사. <명화 읽어주는 엄마>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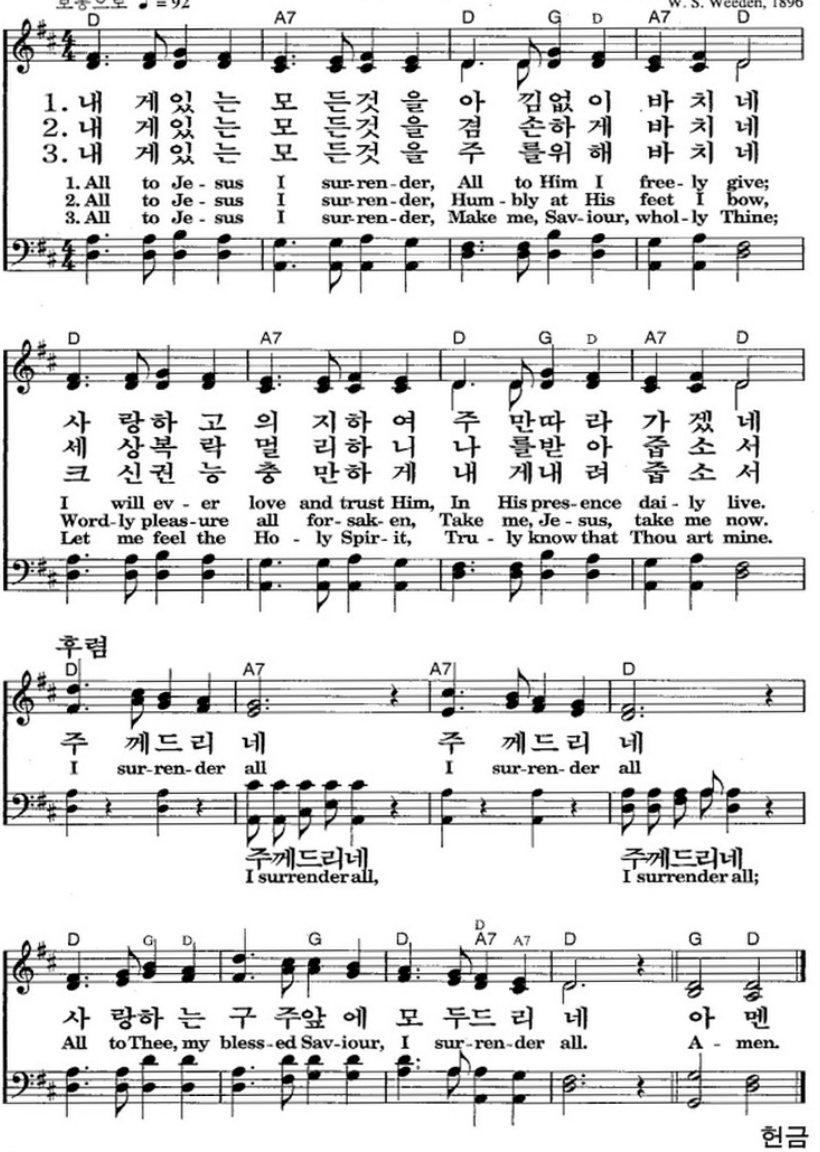
내게 있는 모든 것을 71

All to Jesus I Surrender

(눅 21 : 4)

J. W. Van De Venter, 1896
보통으로 ♩ = 92

SURRENDER: 8.7.8.7.REF.
W. S. Weeden, 1896



헌금

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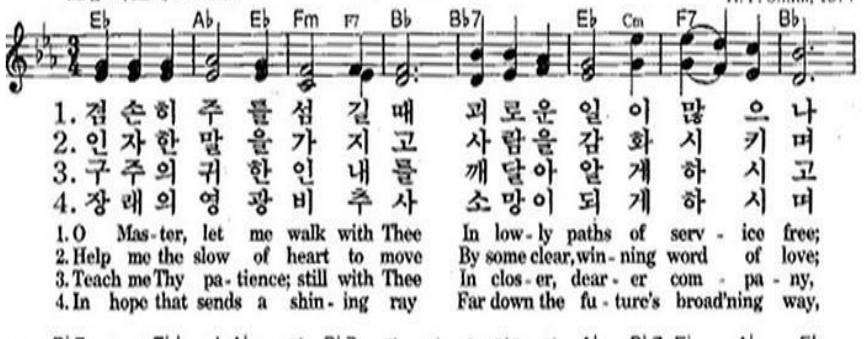
W. Gladden, 1879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히 12 : 1)

MARYTON: 8.8.8.8
H. P. Smith, 1874

조금 빠르게 ♩ = 108



*기타를 위한 쉬운 코드 (capo - 1st)

E♭→D A♭→G B♭→A F(m)→E(m) Cm→Bm

소명과 헌신

[소그룹 설교 나눔 질문]

1. 백성의 피 위에 세워진 시온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미 3:11) 오늘 이 고백이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서로를 안심시키며 주고받는 동안 아무도 지금 누구의 어깨가 내려앉고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이 부적이 되었습니다.

최근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요"라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이 오가던 자리에서, 혹시 우리가 묻지 않고 지나간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2. 백성의 어깨 위에 세워진 모세의 자리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마 23:4)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게 하려는 선한 뜻에서 출발했지만, 말씀이 자리에 앉은 자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남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일터에서 내가 "옳은 말"로 묶어서 누군가에게 건넨 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짐을 받은 사람의 자리에 잠시 서 본다면, 그 말은 그에게 어떤 무게로 느껴졌을까요?

3. 자기 어깨로 복음을 진 바울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살전 2:11) 바울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아버지는 사람들 위에 앉는 명사이고, 바울에게 남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몸을 굽히는 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짓조차 바울의 결단이 아니라 먼저 붙잡혀 비워진 그릇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몸을 굽혔던 일이, 어느 순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서운함으로 굳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몸짓이 명사로 굳어지던 순간, 내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4. 갈아엎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미 3:12) 부적을 깨뜨리시는 분이 예언자도 개혁자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며, 같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갈아엎으신 곳에서 빈 그릇을 채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살전 2:13).

내가 붙들고 있던 자리나 확신이 무너졌던 때를 돌아본다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왔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들려온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5. 모든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지신 그리스도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마 23:8)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던 말씀을 "그러나 너희는"으로 꺾어 제자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자리나 불리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처음 주어졌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자리에 이미 한 분 주인이 계시다는 말씀 앞에 서면, 그 자리는 내게 어떻게 다시 보입니까?

6. 매여 있음을 발견하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 11:28-30) 이웃의 짐이 이미 내 어깨에 매여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이 감동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짐이 처음부터 주님의 멍에였고 그 다른 한쪽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짐이 내 어깨에 매여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나는 그 무게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리고 그 멍에의 다른 한쪽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씀은, 지금 그 무게를 어떻게 다르게 느끼게 합니까?

이번 한 주간, 하루 한 번 머물러 보기

하루 한 번, 잠시 손을 들어 내 어깨 위에 가만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어깨에 매여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서둘러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무게를 느끼며, 그 멍에의 다른 한쪽에 이미 서 계신 분이 있음을 조용히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본 질문지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멍에의 다른 한쪽에 이미 어깨를 넣고 계신 분이 계시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말씀구절 Bible Verse

이번주 본문 중에서 – 미가(Micah) 3:10

10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10 who build Zion with blood and Jerusalem with iniquity.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2:9

9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9 For you remember, brothers, our labor and toil: we worked night and day, that we might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while we proclaimed to you the gospel of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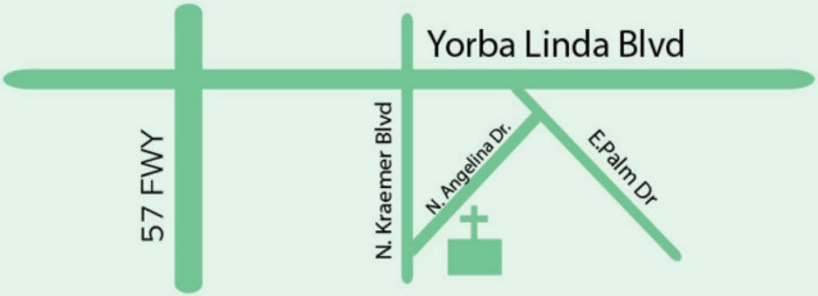
마태복음(Matthew) 23:3-4

3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4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3 so do and observe whatever they tell you, but not the works they do. For they preach, but do not practice. 4 They tie up heavy burdens, hard to bear, and lay them on people's shoulders, but they themselves are not willing to move them with their finger.

찾 아 오 시 는 길



교회소식

1.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오전 8시에 Zoom(897 3213 9944, Passcode 9191)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2. 그동안 주일 예배 후 교제 장소로 사용해 온 교제실이 선거 투표소로 사용됨에 따라, 오늘 교제 모임은 다른 장소에서 갖습니다. 변경된 장소는 예배 후 광고 시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후원선교사: 권홍량(차드), 김성환(태국), 김용진(말라위)

4. 기도 제목: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시고, 악한 세상에 저항할 믿음을 주시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소서.

5. 섬김

	11 월 1 일	11 월 8 일	11 월 15 일	11 월 22 일
기도	황성만 목사	정해철 집사	윤치선 집사	황성만 목사
성경봉독	김미정 집사	김형귀 집사	유은복 권사	윤치선 집사
식사	교회	박효혜	김형귀	교회

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구 분		장 소	시 간
주일예배	**1부 온라인**	**Zoom**	**주일 오전 8시**
	장년부	**본 당**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교육관	준비중
	Youth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대학,청년부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모 임	**말씀의 여정**	**친교실**	**1, 3째주 주일 오후 3시**
	목요 북클럽	**사무실**	**매주 목요일 오전 9:30**
	찬양모임	**친교실**	**4째주 주일 오후 3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